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한암 스님(2)

사토, 경전과 어록에서 가장 감명받은 부분은 어디입니까?

한암, 적멸보궁에 참배나 다녀오너라

'佛法 정수를 문자에서 찾지 말라'는 뜻
고인들 선문답 흉내내는 '口頭禪' 경계

한때 일본 조동종(曹洞宗)의 승려 사토(佐藤泰舞)는 우리 불교계를 돌아본 뒤 마지막으로 오대산 상원사에 주석하던 한암(漢巖 · 1876~1951) 선사를 찾아와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한암 선사는 곁에 놓여 있던 안경집을 들어올렸다.

다시 사토 스님이 물었다. "스님이 모든 경전과 조사어록(祖師語錄)을 보아 오는 가운데, 어디에서 가장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까?"

한암 선사는 사토 스님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적멸보궁(寂滅寶宮)에 참배나 다녀오너라."

다시 사토 스님이 물었다. "스님께서는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수도하였는데, 만년의 경계와 초년의 경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모르겠노라"

이때 사토 스님은 일어나 큰절을 하면서 말했다.

"활구(活句)의 법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암 선사가 말했다.

"활구라 해버렸으니 이미 사구(死句)가 되고 말았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大義)인가?'라는 사토 스님의 질문에 한암 선사는 무심히 곁에 놓여있던 안경집을 들어보였다. "불법의 대의가 저 멀리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네 눈앞에 있네"라는 뜻이 아닐까. <중용>에 "도야자(道也者)는 불가수유리야(不可須臾離也)니 가리(可離)면 비도야(非道也)니라"는 말이 있듯이, 불법(道)은 잠시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으며, 떠나 있다면 이미 불법이 아닌 것이다.

경전과 어록에서 가장 감명 깊은 부분을 묻는 질문에, 한암 선사는 "적멸보궁에 참배나 다녀오라"고 경책한다. "불법의 정수를 어찌 문자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적멸보궁에 참배하고 새롭게 발심한 뒤 직접 문자와 언어가 끊어진 적멸(寂滅)의 경지를 체험하라"는 멋진 대답이다.

이어 한암 선사는 만년의 경계와 초년의 경계를 묻는 질문에, "모르겠노라"라고 답한다. 수행 상에 나타나는 경계는 어디까지나 경계일 뿐이다. 어떤 신묘한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고 가기에, 기억에 남는 좋고 나쁜 경계가 따로 있을 리가 없다.

마지막으로 사토 스님이 활구 법문에 대해 감사를 표하자, 한암 선사는 끝까지 자비를 아끼지 않는다. "입을 열고 생각을 움직이면 벌써 그르쳤느니라(開口卽錯 動念卽乖). 죽은 말(死句) 그만하고 참구나 하거라" 하는 당부를 잊지 않는다.

이처럼 한암 선사는 고인들의 선문답을 흉내 내어 읊조리는 '구두선(口頭禪)', '앵무새선'을 크게 경계하였다. 1925년 서울 봉은사 조실로 있다가, "차라리 천고(千古)에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삼춘(三春)의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강원도 오대산으로 들어가서 27년 동안 동구 밖을 나오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한암 선사의 이런 경책을 받고 크게 감명을 받은 사토 스님은, 어느 강연회에서 "한암 스님은 일본에서도 볼 수 없는 도인임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둘도 없는 인물"이라고 평했다. 이 일이 있은 뒤 상원사에는 선사를 친견하려는 일본 저명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고 한다.

김성우 객원기자

'염불하는 자, 이 누구인가?' 의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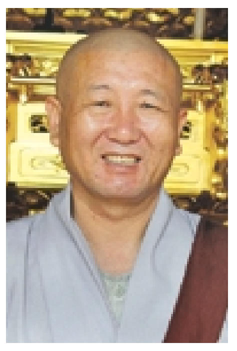
염불선 근본도량 일구는 청원 혜은사 주지 덕산 스님

"참선과 염불을 함께 닦는다면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다."(영명연수 선사)

서산 대사는 "참선이 곧 염불이요, 염불이 곧 참선이다" 라고 했고, 태고보우 스님과 보조 선사를 비롯한 역대 선사들도 자성염불의 공덕을 강조했다. 근대 중국의 허운 대사는 '염불하는 자가 이 누구인가[念佛者是誰]?' 하는 공안이 가장 보편적인 화두라고 까지 말했다. 이런 염불선 수행은 지난 2003년 청화 스님이 입적하면서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게다가 염불선은 기존의 타력(他力) · 기복 위주의 염불에서 벗어나 자성미타(自性彌陀)를 깨닫는 자 · 타력 종합수행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관음' · '아미타' · '지장' 등 불·보살의 명호를 짧고 빠르게 염불하라는 덕산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염불삼매에 빠져든 신도들.

7월 26일 오전, 충북 청원 혜은사(043-297-5115)에서는 평일임에도 20여 사부대중이 염불정근을 하고 있었다. 1992년 청화 스님으로부터 염불선을 배운 후 3000일 용맹정진 중이던 99년 11월, 오매일여(寤寐一如)를 이룬 후 진여자성(眞如自性)을 깨달은 주지 덕산 스님(사진)이 염불선을 지도하고 있었다. 스님은 매일 3회 2시간씩 염불선 정진을 이끌고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공안집인 <직지심경> 강의,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마지막 주는 철야) 참선 등을 지도하면서 염불선 근본도량으로 장엄하고 있었다.



다양한 염불 · 주력 수행이 유행하고 있는 요즘, 염불에 대한 선입견과 분별심을 내려놓고 '염불(주력)하는 이놈이 누구인가?' 하는 염불선을 통해 서방정토가 유심정토와 둘이 아님을 체험해 보자. 덕산 스님을 만나 구체적인 염불선 행법에 대해 들어봤다.

목숨 건 간절한 발심이 핵심

수행으로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대단한 발심이 아니면 힘들다. 덕산 스님 역시 죽음 직전의 막다른 골목에서 비로소 발심이 가능했다. 92년 관세음보살입상을 모시면서 무리하게 사채 빚을 얻었던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수행자의 입장으로 금전에 대한 압박은 심각한 것이었기에, 스님은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하루 삼분정근을 시작했다. 정근을 시작한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까. 정진 중에 크고 밝고 둥근 달 가운데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그를 옹호하는 수많은 불 · 보살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현전(現前)하였다.

"불 · 보살님을 친견한 그때의 벅찬 환희심이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다. 물론 불 · 보살님을 형상으로 보았다는 것은 참모습을 본 것이 아니기에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일을 계기로 더욱 무섭게 정진할 수 있는 용맹심이 솟았다."

정진에 대한 확신과 하면 된다는 자신감은 3000일 염불정근이란 새로운 원력으로 이어졌다. 오랜 지병인 신장염으로 거동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어떤 고통도 정진을 중단할 이유가 되지 않았다. 한 마디로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진일보(進一步)하는 절박한 심정이 아니면 힘찬 정진이 어렵다는 게 스님의 경험담이다.

오매일여의 삼매에 들어야

염불삼매를 얻기 위해서는 간화선과 마찬가지로 자나 깨나 진여당체(眞如當體)에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경지인 오매일여(寤寐一如)가 돼야 한다. 밥을 먹거나 무엇을 하나 끊임없이 놓치지 않도록 해야만 정진력이 생겨 오매일여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육신에 끄달리는 평상시 습관을 끊어야 한다. 육신은 무시이래 편안한 것을 찾아왔기에 조금만 힘이 들어도 뒤로 미루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를 철저히 물리쳐야 한다. 스님은 천정과 사방 벽에 '오매일여'나 '용맹정진'과 같은 글자를 붙여두고 마음을 다잡았다고 한다. 이런 용맹심으로 인해 스님은 삼매를 얻고, 마침내 우주만유와 둘이 아닌 진여자성과 계합하는 체험을 한다.

"유와 무를 떠난 자리, 나의 본래자리, 생각 이전의 자리가 선(禪)이며, 부처자리이다. 이는 우주의 근본 진여당체이며 시 · 공간을 떠난 자리로서 우주를 머금고 있는 자리이다. 또한 역대 불 · 조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자리이며 산천초목 삼라만상의 본래자리다."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닦으라

일상삼매(一相三昧)란 천지 우주를 오로지 하나의 부처로 보는 이른바 실상관(實相觀)이다. 모든 존재의 뿌리를, 모든 존재를 하나로, 진공묘유(眞空妙有)로, 아미타불의 무량광명(無量光明)으로 보는 삼매이다. 그리고 천지우주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그런 견해를 끊어짐 없이, 앞생각 뒷생각에 잡생각이 안 끼이도록 염념상속(念念相續)으로 이어가는 것이 일행삼매(一行三昧)이다. 이 때문에 스님은 염불시의 요령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염불정진 할 때 평상시에 하듯 느리게 하거나, 소리 내서 한다면 삼매를 얻기 힘들다. 진여당체에 마음을 두고 마음속으로 아주 빠르게 끊어지지 않는 쉼 없는 정진을 통해서 삼매를 이룰 수 있다. 가령 관세음보살은 '관음! 관음!'이라고 (아미타불은 '아미타', 지장보살은 '지장' 등으로) 줄여서 마음속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염하라. 그러다 보면 스스로 번뇌가 끊어짐을 경험하게 되며, 바로 그 순간 '수행이 이런 거로구나' 하고 알게 된다. 이렇게 꾸준히 하다보면, 스스로 법미(法味)를 맛볼 수 있게 돼 수행력을 얻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염불하는 자성을 깨닫게 된다"

염불하는 자, 이것이 무엇인가?

덕산 스님은 "염불(주력)하는 그 놈을 의심하면 조사선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기존의 정토염불로는 자성을 깨닫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간화선에서 '무(無)자'나 '이뭣고?' 화두를 들어도 의심이 잘 되지 않아 득력(得力)하는 것이 무척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지속적인 염불정근으로 업을 녹이며 공부의 맛을 느낀 후 '염불하는 이놈이 무엇인가?' 하는 의심을 챙기면 훨씬 수월하게 득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님이 화두에 의심이 잘 들지 않는 참선 수행자들에게 염불선을 널리 전하려는 뜻도 여기에 있다.

청원=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a5@hanmail.net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수행게시판

● **간화선 입문수련**=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인재개발원은 8월 11~14일 3박4일간 봉화 축서사에서 원철, 혜산 스님의 지도로 간화선 입문프로그램을 실시한다. (02)735-2428

● **선정삼매 집중수행**=열린선원은 8월 13~17일 4박5일간 정명 스님의 지도로 아나파나사띠(호흡관)를 통해 번뇌를 제거하고 선정삼매(禪定三昧)의 방법을 배우는 집중수련회를 연다. (02)386-4755

● **염불하며 3000배 정진**=다음카페 불력회(cafe.daum.net/buddhapower)는 매달 첫째 토(오후 8시 30분) 광릉 봉선사, 둘째 토 서울 길상사, 매달 마지막 토 화계사에서 각각 염불하며 3천배 철야정진을 한다. (02)745-3351

● **다라니 1천편 독송 철야정진**=일산 덕양선원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신묘장구대다라니 1000편 독송 철야정진을 실시한다. (031)907-7172

화제의 염주 천연 백수정 108 염주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불멸의 염주

축원불공 마치고 시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천연백수정 108염주가 수입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바위에 석불을 만들고 석불 이마에 영험을 발하기 위해 백수정을 점안해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 광명으로 맑고 깨끗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뜻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영원불멸의 부처님 보석이라하여 천연백수정을 몸에 지니고만 있어도 닥쳐올 화를 미리 쫓고 건강을 지켜주며 원하는 3가지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행운의 보석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공양구로 사용한다.

고대인도와 아라비아 상인, 정치가, 지도층 인사들의 전통모자에는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행운의 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볼수 있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분, 사업을 하고 계신분, 중대한 시험을 앞둔분, 소중한 인연을 찾고 계신분, 자녀문제로 고민하는분,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분등은 믿음으로 사용하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 신광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백수정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백수정108염주외, 특별 선물로 일반인에게는 천연백수정손목단주를, 스님께는 합장주를 드린다. 가격95,000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승리의 염주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제사용 백연화 향로 출시

99% 황동으로 제작! 후손에게 물려줄 가보!

제사를 지내는의식중에 제일 중요하고 엄숙해야 할 의식이 첫번째로 분향이다. 신위(神位)께서 오시도록 향로에 향을 피워 인도하는 의식으로 제사용어로 강신(降神)이라 한다. 강신은 제주(祭主)를 위시하여 제사에 참석한 모든이들이 신위 앞에 선다음 제주는 무릎을 꿇어 향로에 분양을 한다. 이때 신위께서는 천가지 눈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후손들이 행동가짐도 바르게 해야하고 음식도 정갈하게 하며 향로 또한 동물모양등의 조각이 없는것을 사용해야 한다. 백연화 향로는 하얀 연꽃이란 뜻으로 마음으로 신위(神位)를 모신다는 뜻과 후손들은 하얀연꽃으로 신위를 영접한다는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향로다. 신광사에서 제작한 백연화 향로는 99%황동만으로 정교하게 제작되어 천년이 지나도 변색변질되지 않게 베르된왁시 까지 처리하였다. 자자손손 가정의부와 명예를 얻게 일곱봉우리의 백연화가 향로에 피어 있어 가정의 가보로 품위있게 제작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다음날 택배로 받아 제사때 사용할 수 있다.
가격:98,000원 문의(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 규격:높이14cm, 폭18cm, 무게1kg

평생부자지갑

옴마니반메훔 福 지갑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 얻으리라!

소중한 친지에게 사업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물질로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도저히 해결될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은 불경 신묘장구다라니경에 상세히 기록된다. 물질로 고통 받고 있는 중생과 병고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본 부처님께서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흡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묘통하게 해결된다는 뜻으로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에서 돈과 복이 들어오게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 하는 팔길상법구 보병을 넣었으며 지갑내부 뒷면에는 앞으로 사는동안 막힘없이 모든일들이 성공되게 하는 비방인 부처님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金 · 銀나노까지 처리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될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다. 출시 8개월 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묘하게 회복되고 안되던 장사가 잘되고 가정이 풍요로워 지는등 모든 가지가지 문제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된다는 입소문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는 지갑이다. 불광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 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 되게 100일 특별새벽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택배로 보내드린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중지갑6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